

[1~4] (가)는 ○○시청에 제출할 건의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지역모니터링반 학생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 주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가 전국적으로 많이 ㉠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부터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시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관한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설치율이 낮아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미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화면이 손상되거나 작동이 멈춰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설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로 단기간에 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부터 단계적으로 안내단말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점검 및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단말기 고장이나 오작동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만 만든다면 보다 신속하게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음성 정보 안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정보 안내 버튼이 생긴다면 ㉣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율을 높이고 기존의 안내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기능을 보완한다면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는 문화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학생 1: 자, 시청에 제출할 건의문을 검토해 보자.

학생 2: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이용할 때 겪었던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해 봤어.

학생 3: 고생했어. 우선, 글의 첫째 문단부터 살펴보자. 내 생각에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추가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 2: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네. 추가해 볼게. 그런데 둘째 문단에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관한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 3: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인근 도시에 비해 우리 시의 안내단말기 설치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면 좋겠어.

학생 2: 그런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통계 자료가 나오면 읽는 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학생 1: 아니야. 오히려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면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날 것 같아.

학생 2: 그럴 수 있겠네. 조사해서 반영해 볼게.

학생 3: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음성 정보 안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

학생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1: 그랬구나. 교통 약자층을 위한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학생 3: 다음으로 셋째 문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학생 1: 우리 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어 안내도 제공됐으면 좋겠어.

학생 2: 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 내용도 반영해서 써 볼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더 인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학생 3: 마지막 문단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좋아, 그렇게 해 볼게.

학생 3: 그리고 ㉥ 시장님께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하니까 어법에 맞게 썼는지, 내용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꼼꼼히 점검해 보자.

학생 1, 2: 그래.

1. 다음은 '학생 2'가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상태를 언급해야겠어.
- ② 건의 내용의 현실적 수용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단계적 설치를 제안해야겠어.
- ③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된 게시판의 신설을 제안해야겠어.
- ④ 중심 소재와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와 관련된 전국적인 추세를 활용해야겠어.
- ⑤ 신속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언급해야겠어.

2.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1'과 '학생 3'의 대립하는 의견을 '학생 2'가 절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재진술하며 동의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2'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학생 2'가 (나)를 참고하여 (가)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성]	[계획]
처음	▶ 첫째 문단에 '○○시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①
중간	▶ 둘째 문단에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시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율은 60%인데, 우리 시의 설치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② ▶ 둘째 문단에 '지금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가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안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통 약자층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③ ▶ 셋째 문단에 '외국인들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에 외국어 안내 기능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④
끝	▶ 넷째 문단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한 열쇠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⑤

4. (나)의 ㉔를 고려하여 (가)의 ㉑ ~ ㉔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설치되고'로 고친다.
- ② ㉒: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므로'로 고친다.
- ③ ㉓: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난해함'으로 고친다.
- ④ 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시각 정보를'를 첨가한다.
- ⑤ ㉔: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는', '-(으)르' 등으로, 이들이 용언의 어간에 붙으면 관형절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분류된다.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과, 그렇지 않은 관형절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처럼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관형사형 어미는 '-(으/으)ㄴ'과 '-(으/으)르'로,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관형절에서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ㄴ' 앞에 선어말 어미 '-느-'를 붙여 나타냈다. 예컨대 '八姪女の 기론 찾트리 모즈랄쩡(팔채녀가 길은 찾물이 모자라므로)'에서 '八姪女の 기론'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고, '주굴 짜르미어니(죽을 사람이니)'에서 '주굴'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다. 그리고 '本來 求호는 모습 업다이다(본래 구하는 마음 없었습니다)'에서 '本來 求호는'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ㄴ'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곧 '-ㄴ'이 붙은 절 뒤에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없는 상태로, '그릿 혼 조초(그대 한 것 좇아)'에서 '그릿 혼'을 예로 들 수 있다. '혼'〔ㅎ-+-오-+-ㄴ〕에서 선어말 어미 뒤에 쓰인 '-ㄴ'은 '~ㄴ 것' 정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威化振旅 호시노로(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키신 것으로)'에서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ㄴ'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 '호시노로'〔ㅎ-+-시-+-ㄴ+오로〕는 '-ㄴ' 바로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예이다.

5. 윗글을 바탕으로 a ~ c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福이라 호닐〔ㅎ-+-오-+-ㄴ+을〕 나스라
(복이라 한 것을 바치러)
- b. 智慧 너비 비칠〔비취-+-ㄴ〕 느시오
(지혜가 널리 비칠 조짐이오)
- c. 法 즐기노〔츄-+-이-+-ㄴ-+-ㄴ〕 믈스미 잇던덴
(법 즐기는 마음이 있더라면)

- ① a의 '호닐'에서 조사가 어미 '-ㄴ'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a의 '호닐'에서 '-ㄴ'은 '~ㄴ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b의 '비칠'에서 '-ㄴ'을 통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b와 c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b와 c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에서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6. 윗글을 근거로 <보기>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탐구 자료]

- ㉠ 힉찬 함성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 누나는 ㉡ 자동차가 전복된 기억을 떠올렸다.
- 나는 ㉢ 형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 ㉣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변함없다.

[탐구 과정]

동격 관형절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A]
↓ 예	➔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요	[B]
↓ 예	➔	
[C]		

- | | [A] | [B] | [C]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남홍은 훌쩍 몸을 솟구쳐 허공으로 날아오르며 번쩍 칼을 떨어뜨려 도끼를 휘두르는 뇌천풍의 투구를 쪼개어 버렸다.

양원수는 참을 수 없었다. 친히 대결해 보고자 들먹들먹하는 데 소사마가 앞을 가로막고 대신 나섰다. 그러나 ㉠ 방천극을 잘 쓰는 명장 소사마도 강남홍의 놀라운 재주와 칼은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아차!”

소사마는 극도로 긴장하였다. 강남홍의 칼에 맞아 죽나 보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남홍은 하늘에서 나는 듯 명랑한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 하늘이 내신 명장을 내 손으로 어찌 죽이리요. 살길을 열어 줄 것이니 장군은 빨리 원수께 돌아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가라 하시라.”

양원수도 싸움을 내일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고, 강남홍도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러나 싸움에 이기면 이길수록 강남홍의 고민은 컸다.

‘어찌 만왕을 위해서 나의 고국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일장 일출도 내 조국의 군사를 죽이고 싶지 않으나, 그렇다고 스승의 명을 받들고 싸움터에 나와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달 밝은 밤이었다. 강남홍은 옥통소를 가슴에 품고 산에 올라

명군의 진영을 살피며 한 곡조를 불어 보았다. 이 통소 소리를 듣자 명나라 진영은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장수·졸병 할 것 없이 고향 그리운 우수에 잠겨서 눈물을 흘쩍거리리는 자까지 있었다.

[A] 이 광경을 본 양원수는 언젠가 벽성선이 준 옥통소를 꺼내서 한 곡조를 불어 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랬더니 당장에 장수와 병졸들은 명랑한 기분을 회복하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것이 아닌가. 옥통소 소리, 어여쁜 여인 같으면서도 용맹무쌍한 적장. 양원수는 날이 갈수록 의심을 풀길이 없었다.

마침내 양원수와 강남홍은 일 대 일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양원수 진두로 내달았을 때 강남홍도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덤벼들다가, 일결해서 명나라 진영의 원수가 바로 양창곡, 양공자임을 똑바로 알아차렸다.

양원수는 아직도 강남홍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을 높이 들어 찌르려고 덤벼드는 아슬아슬한 찰나.

“상공께서 강남홍을 잊으셨나이까?”

구슬같이 맑은 강남홍의 음성. 이 말에 양원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남홍은 오늘 밤에 단 둘이서 만날 것을 언저지 약속하고 말고뻘을 돌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강남홍은 손삼랑에게만 알리고 명나라 진영으로 살머시 건너 와서 양원수를 만났다.

양원수는 강남홍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또렷이 쳐다보면서 꿈인지 생인지 분간치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

“홍랑! 그대 죽어서 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정말 산 사람이 날 찾아온 것이요? 그대 죽은 것을 잘 알고서야 어찌 살아왔다고 믿으리요!”

강남홍은 흐느껴 울며 목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첩은 상공께서 사랑해 주신 덕택으로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나이다. 여러 사람의 눈이 두려우니 그것만이 근심되나이다.”

양원수는 누가 볼까 두려워하여 즉시로 장막을 쳐서 가리우고 그제서야 강남홍의 손을 덥석 잡았다. 강남홍도 양원수의 손을 마주 잡고 오열(嗚咽)에 젖을 뿐.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이상하도다. 홍랑은 여자의 몸으로 이다지 먼 곳까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명장(名將)이 되어서 만왕을 구하려 나섰으니.”

여기서 강남홍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비로소 자세히 양원수에게 설명해 들려주었다.

- 「옥루몽」 -

7. 위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없는 것은?

- ① 양원수는 강남홍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 ② 강남홍과 양원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 ③ 양원수의 무예가 강남홍의 무예를 능가한다.
- ④ 강남홍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
- ⑤ 강남홍이 참전한 이유는 자신의 사부와 관련이 있다.

8. ㉠에 드러난 강남홍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보다 실력이 부족하지만 오로지 체면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있다.
- ② 전쟁에 이미 승리하였으므로 굳이 상대방을 살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③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상대방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워낙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⑤ 상대방을 제압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9. <보기>는 위 글 앞부분의 일부이다. [A]와 관련 지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느 날 서로 몇 잔 술을 마시고 취흥이 일자, 벽성선은 옥통소를 들고 달을 향해 불기 시작했다. 묘한 재간이 숨어 있는 옥통소였다. 통소 소리 한번 일어나자, 산이 울고 초목이 진동하고 잠자던 학은 꿈을 깨어 날고 미친바람이 일고 흙이 날아 올랐다. 나중에는 벽성선은 무엇을 생각하였음인지 옥통소를 부는 법을 양창곡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상공의 상에는 다소 살벌하신 기운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싸움터에 나가실 듯하오니, 이 옥곡(玉曲)을 배워 두시면 쓰실 날이 있을까 하옵나이다.”

- ① <보기>의 사건은 [A]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보기>의 벽성선은 예지력이 있음을 [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보기>와 [A]를 통해 볼 때 양원수는 적장이 벽성선임을 확신하고 있다.
- ④ <보기>와 [A]를 통해 볼 때 벽성선은 양원수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보기>의 옥통소 소리는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A]에서는 인간 심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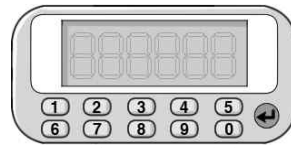
10. ㉡에 나타난 ‘소사마’의 처지에 적용할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생결단(死生決斷)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③ 견문발검(見蚊拔劍) ④ 속수무책(束手無策)
- ⑤ 전전반측(輾轉反側)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 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초기 OTP 발생기>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춧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춧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춧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 인증 서버 역시 기춧값과 카운트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춧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일방향 함수란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괏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가]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춧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

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 번 수행하여 X_n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X_n 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_n 을 일방향 함수 f 로 한 번 더 계산해 X_{n+1} 을 구하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인증 서버 역시 기숫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1$ 번 수행하여 X_{n+1} 을 생성한 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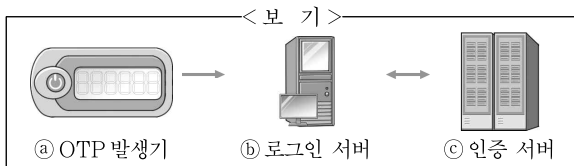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 동기화: 서로 일관성 있게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 같은 시점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11.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②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에서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한다.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 ④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 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 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다.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①에서 ②로 보낸 비밀번호와 ②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 ②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①과 ③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①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로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숫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①은 비밀번호를, ③은 인증값을 생성할 것이다.
- ④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②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①과 ③의 카운트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 ⑤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①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③은 카운트값을 증가시켜 다음번 인증에 반영할 것이다.

1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 ②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 ③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기숫값을 동기화하기 위해
- ④ 인증에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기 위해
- ⑤ OTP 발생기의 질의값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

14.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 2019년 3월 7일 오전 10:00에 인증을 시도하고, ㉡ 오전 10:30에 인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 다음날 오전 10:30에 다시 인증을 시도하였다.

- ① ㉠에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 는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 ② ㉠과 ㉡에서 사용자 A의 r 는 서로 다르겠군.
- ③ ㉡과 ㉢에서 함수 f 를 n 번 수행한 x_n 은 같겠군.
- ④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숫값은 서로 다르겠군.
- ⑤ ㉠ ~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서로 다르겠군.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 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 충돌이라 한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구분된다.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작위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협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 피하려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별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작위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작위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무 충돌은 대개의 경우 작위 의무 간의 충돌을 ㉢ 뜻한다.

의무 충돌을 작위 의무 간의 충돌로 한정한다면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와 서로 동등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를 희생하고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의 일반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 나눌 수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 일러 위법성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법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동등한 가치의 의무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있지만 다만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책임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의무 충돌에서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리아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 ④ 의무 충돌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가 위법 행위를 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법성 조각설은 만약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면 의무 충돌 상황에서의 의무 위반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16.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의무 충돌은 법적 의무의 충돌이어야 하는데, 부작위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 ③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의무만이라도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 ④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동시에 있을 때 행위자가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⑤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이 있다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17. 윗글과 <보기 1>을 근거로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1 >

행위자는 더 높은 가치 혹은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생명과 생명 사이의 법익 충돌이 있는 경우 생명의 수의 많고 적음이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다고 하여 생명 가치의 경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 보기 2 >

a.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b.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학자들이 있겠군.

c.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생명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 ① a
- ② c
- ③ a, b
- ④ b, c
- ⑤ a, b, c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떤 선로에서 한 량의 빈 객차가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역에는 승객을 태운 객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충돌한다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객차의 선로를 변경하려 했더니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선로 관리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노동자는 선로 관리자가 예견한 대로 피해를 입었다.

- ① 선로 관리자는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 ③ 역에 정차한 객차 승객들의 법익과 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충돌로 볼 수 있다.
- ⑤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19.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이곳에서 암전히 몸을 피하고 있더라.
- ② ㉡: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꺼어야 했다.
- ③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 ④ ㉣: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한다.
- ⑤ ㉤: 사람을 일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천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네.

狂奔疊石吼重巒(광분첩석후중란)

人語難分咫尺間(인어난분지척간)

常恐是非聲到耳(상공시비성도이)

故教流水盡籠山(고교유수진룡산)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나)

이 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어부)의 生涯(생애)이로다.
一葉扁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졌거니 날 가느주를 알랴.

구버는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青山(만첩청산)
十丈紅塵(십장홍진)이 언제나 ㄹ렛는고
江湖(강호)에 月白(월백) 흐거든 더욱 無心(무심) 흐애라.

青荷(청하)에 바닐막고 綠柳(녹류)에 고기 껌여

蘆荻花叢(노적화총)에 비미야 두고

① 一般清意味(일반청의미)를 어니부니 아르실고.

山頭(산두)에 閒雲(한운)이 起(기)호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
이 飛(비)이라.

無心(무심)코 多情(다정)하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일생)에 시르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 이현보, 「어부가(漁父歌)」 -

(다)

병술년 여름, 어느 날 나는 곤히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한 것이 마치 병이 든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았다. 또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속이 답답했다.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

“내가 나의 가슴속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나무도 심지 않고,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술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내 행동은 굶뎠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나의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가고 말수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나의 허물은 다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멧대로 한 결과이다. 어찌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좇아다니면서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서 저 극락정토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서는 너로 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없을 것이요, 너는 또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 굳센 죄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움을 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 굳은 돌은 조용함으로 해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해서 영원한 것입니다. ㉢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과 같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 굳은 것은 도리어 화근이 되는 것, ㉤ 당신과 같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도리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형세를 따라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 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지금 어느 것이 흉한 일이 되고 어느 것이 길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 윤

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의 경지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 당신 자신을 잘 지키도록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지요.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래서 앞으로 내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備)」 -

2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자연물을 본받으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의 화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의 화자는 가난하지만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가)~(다) 모두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1. (가)를 시조로 바꿔 쓰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지켜 쓴 것은?

— < 보 기 > —

○ (가)의 주제 의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할 것.
 ○ 시조의 일반적인 시상 전개 방식, 즉 초장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중장에서 이를 이어받은 다음 중장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에 맞추어 쓸 것.

- ① 첩첩산중 바위 사이로 말소리 들려오네.
시비를 분간하여 바르게 듣자더니,
물소리 산에 두르고 안 들린다 하노라.
- ② 인세를 잇을 만하니 이 아니 좋을쏘냐.
바위 사이 광분하는 물소리로 산을 둘러
지척의 말소리조차 분간기 어려워라.
- ③ 아무리 들으려 해도 귀에 닿지 않으리.
말소리 시비 소리 분간하고 싶은데,
바위틈 흐르는 물이 온 산을 뒤흔드네.
- ④ 바위 사이 광분하는 물소리 굉장하니,
지척의 말소리도 분간기 어려워라.
온 산에 시비성(是非聲)은 둘러 두고 듣고저.
- ⑤ 첩첩 바위 사이 광분하는 물소리에
지척의 말소리도 분간기 어려워라.
저 물로 산을 둘러서 시비성(是非聲)을 막으리.

22.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의 시어들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구절은 송나라의 소강절(邵康節)이 “달이 하늘 한가운데에 이르고 바람이 수면을 스칠 때, 일반의 청의미를 아는 이 적음을 헤아려 알았노라.”라고 노래한 ‘청야음(淸夜吟)’이라는 시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이 시에서 ‘청의미(淸意味)’는 욕망이 모두 정화(淨化)되어 지극히 순수해진 인간의 본성이 자연과 화합하여 이루어낸 경지를 일컫는다.

- ① ‘시름’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人世(인세)’와 호응한다.
- ② ‘月白(월백)’은 욕망이 정화된 화자의 내면과 조응한다.
- ③ ‘靑荷(청하)에 바블쁘고 綠柳(녹류)에 고기 빼는 삶은 ‘일반의 청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어니부니 아르실고는 ‘일반의 청의미’를 아는 이가 적다는 뜻이다.
- ⑤ ‘無心(무심)코리는 말에는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겨 있다.

23. 발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1점]

- ① 뜻을 다 표현한 다음에 말을 마치는 것은 천하의 지언(至言)이다. 그러나 말을 마쳐도 뜻은 다함이 없어 은은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더욱 지언이라 할 것이다.
- 신희, 「야언(野言)」 -
- ② 양재(良材)는 천수(天壽)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개 도중에 벌목을 당하고 만다. 세상에 소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나무는 아무도 베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장수한다.
- 장자, 「인간세(人間世)편」 -
- ③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술이 정교해진다. 그러므로 촌마을 사람들은 읍내의 기술을 못 따르고 읍내 사람들은 큰 도시의 기교를 따르지 못하고, 큰 도시 사람들은 서울의 회한한 신식 기술에 못 미치는 것이다.
- 정약용, 「기예론(技藝論)」 -
- ④ 산에 깃들여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얽매이고 연연해 한다면 이 역시 시장바닥이나 마찬가지다. 서화(書畵)를 완상하는 것은 아취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탐욕의 마음을 낸다면 이 역시 장사치이다.
- 홍만중, 「처가이물(處家理物)」 -
- ⑤ 재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 장유, 「곡목설(曲木說)」 -

24. (나)와 (다)의 화자가 <보기>의 시를 읽고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산슈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론 놈들은 웃는다 헛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더는내 분인가 흐노라.

누고셔三公(삼공)도곤 낫다 흐더니 萬乘(만승)이 이러흐라.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소부허유) | 낙똥더라.
 아마도 林泉閑興(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업세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① (다)의 화자 : 나는 사람들의 시비에도 화를 내지 않는데 이 사람도 그럴 것 같군요.
- ② (나)의 화자 : 이 사람도 나처럼 '십장홍진'에서 멀어지고 싶은 심정인 것 같군요.
- ③ (다)의 화자 : 소부와 허유가 약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도 복의 근원을 깨달은 것은 아닐까요?
- ④ (나)의 화자 : 결국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은 어부로서의 나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군요.
- ⑤ (다)의 화자 : '임천한흥'을 즐기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어떤 형세에서든 길한 일만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 a~e 중, (다)의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확인 사항
 ◦ 제한시간 40분